朝鮮日報
第二夕刊
三十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聯合軍遂後退開始

五十餘萬中太半은無事乘船

英佛兩當局確認言明

【倫敦二十九日發同盟】獨軍의包圍網에 苦戰을 繼續하고있는 英佛聯合軍의 運命은 頗히 憂慮되는데 英軍當局은 二十九日聯合軍이 新防禦線을 確立하여 最後方部隊는 이에 依據하여 獨軍의 猛追擊을 抑止하여 主力部隊의 後退를 容易하게 하는 同時에 武器其他軍用機材가 敵手中에 들어갈것을 極力破壞하고 破壞하며 全軍着着後退를 繼續하고있다고 言明하였다

【巴里二十九日發同盟】佛國官邊에서는 二十九日프란돌戰線의 聯合軍五十萬餘中大半은이미 단케르크에서 無事乘船을 마치었다고 言明하였다

【倫敦二十九日發同盟】二十九日英國은 軍當局發表=我空軍은 北佛聯合軍의 撤退를 掩護하려고 必死의 活躍을 繼續하고 있다 即二十九日 我戰鬪機部隊는 단케르크附近에서 戰鬪機와 獨空軍大編隊와 遭遇하여 激戰한後 적어도 二十一機를 擊墜하였다 그리고 我爆擊隊는 二十八日及二十九日午前에 亘하여 佛白兩國의 北部地區에서의 獨逸後續部隊에 對한 連續爆擊에서 我方一機를 잃었다

五十萬脫出?

獨軍에게 包圍되어 그 陷落이 目睫에 迫迫하고 있다고 傳하여 이는 【[illegible]】 英佛軍은 過去數日間에 脫出하여 칼레港에 海路에 依하여 脫出하여 [illegible] 그러나 다른 情報에 依하면 脫出에 成功하였다고 [illegible]

【紐育廿九日發同盟】獨側의 情報에 依하면 白耳義軍降服後도 프란돌戰線에 있는 英佛軍約二十個師는 依然頑強하게 最後의 抵抗을 하고있다 [illegible]

英國죠지六世陛下

一線將兵의士氣激勵

【倫敦二十九日發同盟】英皇帝죠지六世께서는 英國派遣軍이 白耳義에서 直面한 重大危機에 際하여 二十九日親電을 派遣軍總司令官 고트大將에게 發하사 英軍의 士氣를 激勵하시었다 過去二週日間의 連日戰鬪에서 英派遣軍이 發揮한 勇敢한 抵抗에 對하여 英國民은 絕大한 感謝를 하고있다 [illegible] 余는 派遣軍 全將兵을 代表하여 陛下의 메세지에 對하여 [illegible] 바이다

英佛단케르크

續續脫出을企圖

【巴里二十九日發同盟】佛國國防省스폭스맨은 二十九日英佛軍은 단케르크로向하여 後退中이라고 다음과같이 言明하였다 英佛聯合軍의 後衛部隊는 目下同市에있어서 獨軍의進擊을阻止하려고 猛烈한 市街戰을 繼續하고있는데 主力部隊는 敵彈을 [illegible] 撤退하려고 단케르크港으로 向하여 [illegible]

及川大將에御陪食

【東京電話同盟】畏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三十日正午豐明殿에서 近衛聯隊長以下側近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 及川古志郞大將을 부르시사 御陪食의 榮을 가게시어 御慰勞하옵셨다 이날 天皇陛下께옵서는 [illegible]

솜므河反擊

聯合軍唯一의活路

【倫敦二十九日發同盟】白耳義國王 레오폴드三世가 突然獨軍에게降服한 結果 英軍을主力으로하는 聯合軍의北部方面軍은 부란샤 고트 兩將軍의 指揮下에 即時 戰線을 整理하고 空軍의掩護爆擊下에 新陣地에 就하였다 [illegible]

白國王降服事情은

依然수수꺼기?

【紐育廿九日發同盟】白耳義國王 레오폴드三世가 突然降服의 擧에 出한데 對하여 [illegible]

—카르르獨軍戰車部隊의行進—

重慶再次爆擊

空中戰展開、軍事施設粉碎

中支艦隊報道部發表

【○○基地三十日發同盟】中支艦隊報道部三十日午前十時發表 蔣介石으로하여금 對日抗戰의 非를깨닷게하려고 連日快晴을利用하여 重慶其他軍事據點을 猛攻하여온 我海軍航空部隊는 昨二十九日 小谷飛行隊長指揮下에 中村(源三)池田、奥村各部隊及 勝見隊長指揮下에 金子、田淵、安達各隊의 二隊로나누어 午後一時五十分及 二時二十分二回에 亘하여 長驅重慶을 猛襲하여 敵地上砲火를 무릅쓰고 또根氣진 敵戰鬪機七機와 三十分동안 空中戰鬪를展開하여 機體에 數發의 飛彈을 바드며 잘敵二機를 擊墜하고 浮圖關(重慶西郊)上空에 突入하여 同地軍事施設群을 爆擊 全彈을 命中시켜 이를潰滅시키고 그中三個所에서 火災를 일으킨 것을보고 全機는 悠悠히歸還하였다

重慶政府機關一部

峨嵋山麓으로移轉?

【香港二十九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我海軍航空隊의 連續大空襲에 견디지못하여 重慶黨政府要人들은 이미 嘉陵江岸의 新市街에 있는 住宅街를 撤退하여 家族을 成都公路沿線各都市에 옮겼는데 重慶當局은 日本空軍의 重慶爆擊이 今後도 長時間있을것을 豫想하고 同政府各重要機關을 다시奥地에 옮기려고 [illegible]

江北蕭淸進捗

【香港二十九日發同盟】我林田部隊는 江北의 要衝 [illegible]

近代戰術電擊戰法(一)

그發生과成長過程

世紀的驚異, 獨逸軍의 疾風迅雷的突進에 對하여는 全世界가 다못 驚嘆할뿐이며 軍事專門家들도 [illegible]

◇

電擊戰法의 根本精神은 所謂 孫子의 『亂而取之』 [illegible]

蘇、英特使를拒否

通商交涉은大使를通하라

蘇聯特使資格을不肯

【莫斯科二十九日發同盟】英蘇通商交涉打開의 使命을띄고 莫斯科에向한 英國通商特使스탯포드 크립프스氏는 [illegible]

蘇落下傘戰術强化

土陸軍豫算成立

【아카라二十九日發同盟】 [illegible]

英外國人取締强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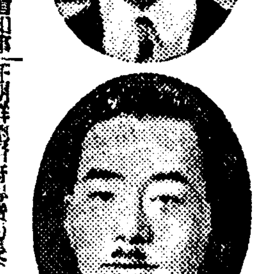
【倫敦二十九日發同盟】英本國은 最近國際危機切迫에따라 [illegible]

歐洲各地邦人歸國

【巴里二十九日發同盟】巴里의 [illegible] 白山丸으로 歸國하기로 되었다

甘蔗京畿知事退官

後任에鈴川專賣局長



朝鮮總督府에서는 京畿道知事 甘蔗義邦氏의 辭職에 伴하여 專賣局長 鈴川壽男氏를 京畿道知事로 [illegible]

朝鮮總督府 京畿道知事 甘蔗義邦
朝鮮總督府專賣局長 鈴川壽男
任朝鮮總督府京畿道知事(一等)
朝鮮總督府 外事部長 松澤龍雄

兩氏의略歷

新任京畿道知事 鈴川壽男氏는 [illegible]

松澤專賣局長

熊谷情報部長

卅日中支向發

國府使節大阪着

【大阪電話同盟】來朝中인 國民政府答禮使節陳公博氏一行은 三十日午前九時五十分大阪驛着列車로京都로부터 來阪 [illegible]

레오폴드三世

王城에御歸還

【巴里二十九日發同盟】白耳義全軍에 降服命令을 發하신 레오폴드三世의 [illegible]

戰時避難民은

米國에서收容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 [illegible]

八面鋒

◇ [illegible]

英國又復增稅斷行

英藏相下院에서言明

【倫敦二十九日發同盟】오는藏相은 二十九日下院에서의 豫算討議에서 [illegible]

政友久原派幹部會

【東京電話同盟】政友會久原派에서는 二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 本部에서 [illegible]

開拓義勇軍第一陣

二十九日東京出發

【東京電話同盟】內原訓練所에 있는 [illegible]

人事·集會

◆鎭田周一氏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取締役兼支配人 新任人事次三十日來社
◆ [illegible]
◆ [illegible]

廣告

肺病은必治?
興亞榮養化學工業株式會社

『新世紀』六月號
不遠出來！
謹啓 前般『新世紀』四月特大號를 내여노아 [illegible]
四·五月號注文讀者諸氏에게謝告함
昭和十五年五月 日
京城府[illegible] 新世紀社 謹白

大歷史書
湖岩全集
朝鮮日報出版部

李寅權君의
오케
사랑은不死鳥
失戀草
花柳哀情
보내는 純情詩
어머니悲劇
丈人의호령
處女合唱

두통에
노-신
定價
京城府南大門通 株式會社新井藥房
總代理店 淸津府 清津新井藥房
製造元 東京市小石川區 中村信治商店

唄ふ東海林夕起子とそのバンド
(實演八六月六、七日二日限)
映畫 特別公開 歷史
六月八日ヨリ「歷史」「翼の人々」同時上映致します
黃金座改め 吉本寶塚
京城寶塚劇場

生氣潑溂한力作品

生長하는우리美術界의萬華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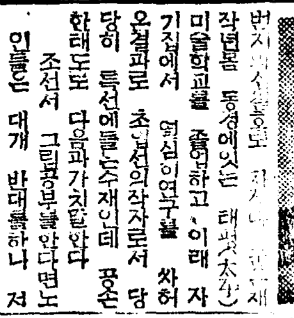
美展六月二日부터公開

特選作品을나키까지

[illegible]

父母님의恩德 이제는故人!

趙炳悳君 談



『어떤정의 풍경』의 작자 조병덕(趙炳悳)군 … 태평(太平)…

[illegible]

刻苦十五六年

朴泳善氏夫人談

서양화특선『신개지』의 작자 박영선(朴泳善)씨는 … 대동강소견(大同江所見)이란 작품으로 특선하고 이번에 두번째이다 …

[illegible]

兄弟의精進

金仁承、金景承兩氏

작년에도 김인승(金仁承)씨는 … 김경승(金景承)씨는 … 개성(開城)출생으로서 모두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우수한 성적으로 …

[illegible]

金仁承氏 談

[illegible]

金景承氏 談

[illegible]

畵室의선물을 바드리라는

孫應星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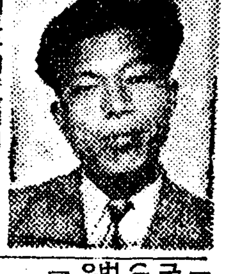
[illegible]

生의기쁨表現에努力

金晩炯氏 談

서양화 군상(群像)에 특선의 영관을차지한 김만형(金晩炯)씨는 개성(開城)출생으로서 작년에 동경에잇는 제국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를 우수한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

[illegible]



特選繼續六回!

工藝의權威姜昌奎氏

[illegible]

애기들이더반겨祝福

張基命氏

[illegible]

情熱을工藝에!

七十二歲의鄭寅琬氏

勞作의石窟庵 再特選의鄭氏

[illegible]

特選四回

金基昶氏

[illegible]

아프로더욱 精進하겟다

崔根培氏 談

『탄금도(彈琴圖)』로써 초특선의 기쁨을 맛보게된 최근배(崔根培)씨는 겸손한 태도로 다 …

[illegible]

☆名譽의特選作畫報☆

上段右로부터▲鄭末朝氏의『首』▲孫應星氏의『追遠』▲曹圭奉氏의『스키ー服姿態』下段右로부터▲崔根培氏의『彈琹圖』▲趙炳悳氏의『어떤庭園의風景』

隨筆

[illegible]

元山에四十六미리

비는南朝鮮으로퍼진다

이십팔일부터 서북선일대에내리기시작한비는 점점남쪽으로퍼저 삼십일아침 여섯시현재로원산의 사십육미리를 최고로서북조선각지에는 상당히내렷고 남조선지방도 조금내렷다 보리와 모짜리에조흔것은 다시말할것도업거니와 흉작한양은아니다기압배치로보아 좀더올것이기대되는데 장차모낼물은 아직도대단모자라는실정이므로 좀더만히왓스면하는 희망은 간절한것이잇다 각지우량은다음과갓다

▲中江鎭三〇▲新義州一三▲元山四六▲新幕二一▲海州七▲仁川六▲京城六▲全州三▲秋風嶺三▲江陵一

【咸南支社電話】이십팔일저녁부터 함남일원에쏘다진비는 삼십일오전두시까지 왓는데 매우흡족한 상태에잇다 그런데 각지우량은 다음과갓다

▲咸興 五〇미리四 ▲永興 三七 ▲北靑 三六、二 ▲洪原 一七 ▲新興 三〇 ▲端川 六一 ▲文川 四五 ▲長津 一二、四

觀光聯盟總會 宮崎市에開催

[illegible]

木浦에火災 精米工場燒失 損害三十萬圓

【木浦支局電話】[illegible]

商品斤量表示制度 八月一日부터實施

京畿道에서商品을指定發表

경기도에서는 현하시국의정세에대처하여 국민생활의안정을꾀하려고 물자와물가의문제를 강화하는동시에 중요성을가진 상품의근량을 정확히하여 일반의불안을 제거하려고 팔월일일부터 근량표시제도를 일제히실시하기로되엿는데 실시일 다음과가치 근량표시상품을 지정하엿다

▲指定商品 米(精米)、酒(淸酒、合成酒、朝鮮酒及燒酒)、茶、食用粉類、食料品 罐詰、樽詰(魚介、鳥獸、野菜、果實漬物及乳製品) 木炭

이상과가티 제일차지정을하엿는데 아프로점점 품목을느리는동시에 도외생산품의 판매업자에게도 이상과가튼 취지를하도록 요망하엿다 도한근량을표시하는방법은 포장지(包裝紙)의빈틈을 이용하여『正味何匁』(正味何斤)이라 표시자의씨명또는 상호(商號)및지방이름을 가리쓰기로 되여잇다

道林町强盜犯 眞犯人을今朝逮捕

지난이월이십일오전세시 부내도림정(道林町)[illegible]

스포ー츠 뉴ー스

東亞競技大會 開會順序決定

六月五日부터神宮外苑競技場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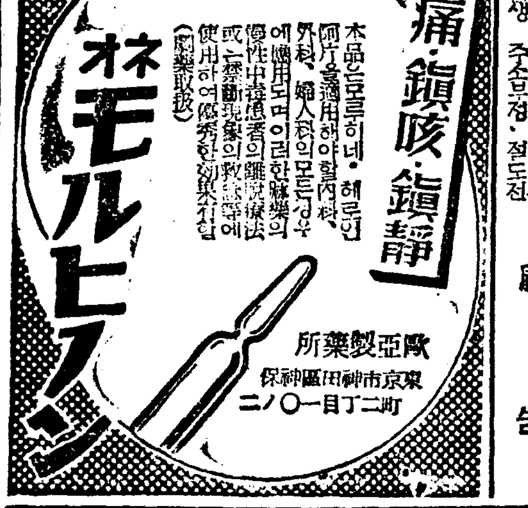
今夜의 라듸오

第一放送 ▲午後六時 兒童劇 ▲同六時二十五分(大)科學 ▲同六時二十五分(京)講演 ▲同七時四十分(東)東鄕神社鋼鐵祭 ▲同八時(東)物語 ▲同八時三十分(東)時局談話 ▲同九時(東)드라마

第二放送 ▲午後六時 兒童劇 ▲同六時二十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二十分 經濟解說 ▲同七時三十分 女聲合唱 ▲同八時 라디오歌謠 ▲同八時二十五分 講演 ▲同八時二十五分 歌詞 ▲同九時 野談

廣告

鎭痛·鎭咳·鎭靜 オネモルヒン 東京市神田區神保町二丁目一〇一二 歐亞製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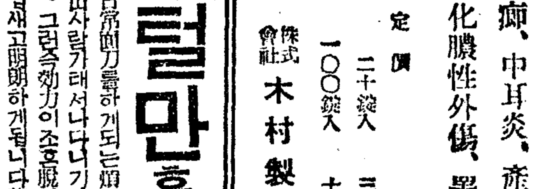


東宝 海軍爆擊隊 封切迫る 男對男 若草東寶

流行歌 國境아가씨 (44001) 金安羅 콜롬비아레코ー드

許特 商標 ツヨナール 織物保强劑 朝鮮總發賣元 高瀨合名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代表電話本局②7186

リンダリン錠 LINDALIN 株式會社 木村製藥所



頭痛·神經痛에 パポン錠

男女 털만흔분

强力强精增進劑 金剛不老丸

服藥의好期는왓다 事業의成功은健康에서

皮膚病 チャージ

朝鮮醫學家庭全書 定價貳圓五十錢 朝鮮日報出版部發行

多燒機販賣 修繕業 中古タイヤー 大輪商會

利남는椎茸

月經

朝報丸

醫師招聘 家屋廉賣 樂隊樂器 營業所長採用 外務社員急募集 漢藥醫學經驗者 論語 生徒募集 洗濯石鹼 最近の物價 女子事務員採用 鐵道員으로早道 나도되고시픈鐵道員 日本鐵道敎育會 資生堂本舖 淋疾六〇六號新發明 고구마苗賣出!!

現代가 要望하는 新倫理 ②

"超越的" "自我" (中)

徐寅植

現代의 職分倫理가 近代의 個我倫理에 比하여 優越한 側面이 잇다면 그것은

☆人間☆

을 抽象的인 理性人間으로 보지 안코 具體的인 歷史的社會的人間으로 본데 잇다 그는 人間을 어데까지 歷史社會의 分肢와 連環으로 보고 後者에 卽하여 前者를 把握하는데서 倫理의 主體를 個我에 두지 안코 民族에 두엇다. 그러고 그것은 두말할것업시 올타. 人間이 歷史의 以前이 아니고 以後라는것은 現代에 잇서서는 한 개의 常識이다. 民族을 倫理의 主體로보는 職分倫理는 그點에 限해서는 「主體人間」의 倫理가 아니고 歷史에 사는 人間의 倫理로 볼수잇다.

그러나 現代의 職分倫理는 歷史를 媒介로하고 個人을 把握할줄만알고 個人을 媒介로 하고서는 歷史를 把握할줄은 모른다. 社會가 個人을 超越한것만 알고 個人이 社會를 超越한것은 모른다. 그러나 歷史와 社會는 一方 自我를 產生한것인 同時에 또한

☆自我☆

에 依하여 生產된 것이다. 그것은 人間을 맨드는 限에 잇서서는 個我의 主體的 地盤으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잇스나 人間에 依하여 맨들어지는 限에 잇서서는 도로혀 個我의 客體的 表現으로서의 意味를 지니고 잇는것이다. 다시말하면 歷史社會는 個我의 倫理的 行爲의 基體인 同時에 또한 한개의 倫理的인 表現의 世界이다. 그리고 그것이 個我에 對하여 表現의 意味를 지니고 잇는 限 그 表現을 自己의 表現으로 自覺하는 自覺의 自我에게 잇서서는 또한 더 나아가 倫理的 行爲의 對象이 되지 아니할수 업다.

그러므로 한말로 말하면 歷史社會는 一方 自我를 否定하는 同時에 他方 自我에 依하여 否定될 宿命을 지니고 잇다. 모든 社會的 世界가 곤 인것이 自己를 否定하고 自己를 超越하여 自己로 移行하는 「歷史的」인世界도 存在하는것은 社會가 自己否定의契機로서 이와가튼 個我도 지니고잇기때문이다. 그러므로 歷史社會는 一方 自我를 包攝하는同時에 또 自我의속에

☆包攝☆

되는 構造를갓고잇다. 이러한 意味에서 自我란 正히 內在와超越의 二重의性格을 가진것이며 歷史란 또한 그러한個我를 尖端으로하고 社會를基底로하고서 運動하는 一個의 圓錐形의物體로 볼수잇는것이다.

그러데 現代의 職分倫理는 歷史社會에 否定되는 自我만을보고 歷史社會를 否定하는 自我를 보지못한다. 前者에包攝되는 自我만을보고 前者를 包攝하는 自我를보지못한다. 現代의 職分倫理가「個我倫理」의 限界를넘어서 個我를超越하는 歷史我 社會我를 發見하엿슴에도 不拘하고 그歷史我社會我에 充全한 道德的意識으로서 안바친 倫理的基礎를 提供하지못하는것은 이때문이다. 單純히 個我를否定만하고 個我에依하여 否定될줄을모르는 歷史社會의 立場에서는 道德意識이 成立할수업는것이다. 道德意識이 成立하는데는 우에서도 말한거와가치 歷史社會를 肯定할수도잇는 同時에 否定할수도잇다는 事實을 前提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리고 現代가 우리의손에 쥐여준 職分倫理가 만일 個我를否定하면서도 肯定할수잇는 自我의次元에까지

☆歷史☆

超出하지못한때문에 倫理다운 倫理로서의 本質을가추지못하엿다면 우리가 찾는倫理다운 倫理는 正히 이歷史를肯定하면서도否定하며 歷史에內在하면서도 超越하는 自我의次元에까지 超出하는立場에서 成立하는것이아니면 안될것이다.

×

그러면 그이른바 歷史的社會的倫理의 成立을可能케하는 自我란 어떠한自我일까? 그것이 만일 歷史에內在하면서도 超越하며 肯定하면서도否定할수잇는自我라면 그것은 個我와歷史를 함께否定할수잇고 함께包攝할수잇는 自我일것은 두말할것도업다. 다시말하면그것은 個我와歷史의「對立과統一의統一」로서의 媒介를가진 自我일것이다. 個我를 歷史에 內在한內在的自我라면 그것은 歷史를

☆超越☆

한超越的自我일것이며 歷史를 內在的自我에對한 相對的全體라면 이超越的自我는 그歷史까지도 超越하는 絶對的全體일것이다. 歷史社會를個我에對한 相對的普遍이라면 이것은 絶對的普遍일것이다. 「헤ㅣ겔」이말한絶對精神이란 正히 이러한것이리라 그것은 歷史社會가 存在한다는 意味에서 잇는것이아니다 그러나 歷史社會가 客觀的으로存在하는것인限 그客體를超越하여 다시그것의 根據로나오는 自我가 잇지안흘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歷史社會라는 有的普遍이 아닌 對象的有로서 無的普遍이다 그리고이러한 自我는 事實에잇서서 歷史社會의主體的行爲의 表現으로하고 自我와歷史의同一을 自覺하는 同時에對立까지도 自覺하는自覺이다.

學藝

"포스터ㅣ"의 戰爭 (3)

이獨逸"포스터ㅣ"는 "챔버ㅣ린"은 戰爭行商人이다하엿고 "히틀러ㅣ"는 前線兵士다고불럿다 그래서 "챔버ㅣ린"은 "가스마스크"를 쓰고 대기는데 "指導者"는 戰線의危險을 무릅쓰고잇다고 하엿다.

風俗隨感 (下)

骨董

金南天

▼…두세번 機會가 잇서서 骨董趣味에 對한 意見을 吐露해 보려이 잇섯스나 文藝作品을 批評하는 文章에서 簡單히 言及해 보앗던게 제로 그것은 至極히 單純한 分析에 지나지 못하엿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것을 東洋的 趣味나 東洋的 雅趣가 文藝作品에 나타난것을 分析해 보기爲해서 士俗, 民俗人의 嗜好나 趣味로 普及化되는 傾向에 關해서 몃마디를 消費하엿던것이다.

▼…지금 그것을 몃개의 要點으로 簡約해보면 (一) 先進外國人의 異國的인것에 對한 好奇癖 (二) 古典復興熱과 古典愛護熱에 便從된 自己文化의 愛護熱, (三) 復古趣味等을 들엇섯는데 이것은 單純하기는하지만 그릇되엇거나 잘못된 見解는 아니엇던것갓다.

여기에다 나는 다시금 다음 몃가지를 더 添付해서 생각하려한다. 卽 骨董을 蒐集하는 主義者들의 一種의 虛榮心과 이것의 一般市民에의 浸潤으로 移植된 商賈(브로카ㅣ)의 形成가튼것이 그것이다.

▼…얼마前에 書畵古物의 中介商人을 할 某氏가 就職한것을 읽으면 朝鮮人 十가운데서 이것을 收藏하여 지금 斯界의 重心에 안즌이들은 모다 十年前後에 始作한 분들이라 고한다 다시말하면 우리네 書間에 廣範圍로 이러한趣味가流行하기 시작한것은極히 最近의일이라는것이다. 社會思想의 退潮期에 該當한다 卽古典復興熱과 復古思想的頹頹와 時日을가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先進外國人들도 벌서부터 朝鮮에와서 이런것을 蒐集하기에 努力하여오다한다 [illegible] 洋書도 石板을부치고 [illegible]부터 보아온것가튼데, 이것은 말할것도 업시 先進外國人의 異國趣味와 好奇心을 낙기爲한 商人의 奸眼이엇슬것이다. 西洋人은 부러 [illegible]하야와서 大會社의 重役들을 거처서, 十年前後하여 그것은 自己文化의 遺物이라는 至極이 高尙한 學問的標語의 擁護하에 우리社會에 大部隊의 進出을 보게된것이다.

▼…이러한 經路를 보면 알것지마는 當時에 잇서 그리 損色이업스면서 그社會的인 地位와 名聲에잇서 到底히 따를것이 업는 群小財産家와 갓작富者들이 自己의 品格을 宣揚하고 教養과 趣味의 發露를 爲하여 虛榮心을 發動시킨것도또한 否認할수업는 事實일것이다 글씨를 云云하고 그림을지 꺼리고 질그릇이나 厖쪼각을 주물러야 다 그럼듯한 紳士인것이다.

▼…이리하여 前記某氏의 말에 依하면 一二萬에서 一二十萬價格의 骨董, 美術을 收藏한분은 언저 그數를알기 어려울 程度라한다. 個中에는 幾百萬圓에 該當하는 出衆한분도 잇는모양이어서 이것은 하나의 蓄財의方式으로도 되어잇는것갓다. 땅이나 株를 가지고잇는것만이 富者가 아니다. 骨董을가지고잇는거와 마찬가지로 骨董을가지고 잇는것도 蓄財인에 틀림업다.

▼…발작크의『人間戲曲』을 읽으면 處處에『에리!·마큐스』라는 骨董蒐集家가 나온다. 그는 猶太人으로서 骨董商의 商人으로부터아 마큐어로 올러안자 宏壯한 美術館을 맨들고 그곳에自己가 一生을 圖畫해서 蒐集한寶石과 貴物과 繪畫와 彫刻과 古物骨董을 陳列해 노코는 이것을 獰猛히 세마리의 개로하여금 지키게 하고잇다. 그는 累萬金의財產이면서 一八四四年에는 이미 七十五歲의 高齡인데 不拘하고 粗食하고 儉約하여 아직도 傑作을 蒐集하는데만 돈을 쓰고 잇다.

▼…『마큐스』는 歐羅巴의 地圖를 한장 가지고잇는데 傑作品의 所在를 그는 이地圖우에 明示해두고 그것을 끌어 내서 제손에 들어오게하기爲하여 策略을 거듭하고잇다. 그가 希望하는 傑作內에서 傑作이 하나 發見되면 갑작이 그의 生活은 生氣를 띠고 비로소 그의 存在는 [illegible]되고 [illegible] 하여『必勝을 期합마련고의一戰』에 나선것처럼 意氣가 자못 등등하다고 발작크는 描寫하고잇다. 이것으로도 알수 잇지마는 발작크는 이것을 하나의 蒐集狂 다시말하면 例의 偏執狂으로 取扱하고잇다.

▼…다시 그의有名한『從兄퐁스』의 性格과 傳記를 보아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불상하고 가난한 老音樂家가 아모도 모르게 數十年間을 苦心하여 蒐集한 그의 美術館을 보라! 이美術館의 價値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업섯다. 『퐁스』에게잇서 父母요, 愛人이요 그의 全部라고 말하는『슈무켄』영감에게도 그는 그것을 알리지 안코 혼자서 숨어서 즐기고 잇섯다.

『어떠한 憂惡나, 어떠한 變態도 사람이 어떤 마니야(偏執)에 빠지고말면 그의 魂는 救援을 밧는다. 歡樂의 술잔—어떤時代의 사람에게서도 그러케 불리워지는 술잔을 마서버린 무에라지 죠호는 사람은 무에라고 말하는가니까 한 蒐集에 精力을 거우려보라! 그러면 諸君은 적은 費用으로 至福의地金을 發見하게 될것이다』라고 발작크는 記錄하고잇다. 蒐集狂! 朝鮮社會에서도 이러한 偏執狂이 나오려하는가! 그것이 다른部類에서 보다 骨董蒐集狂에서 비롯한다는것도 재미나지 아니하는가!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綠陰
押 侵韻
期限 六月十五日

(滿洲進呈)

이야기책과 現代 (三)

△…古典의再認識과 그消化…▽

申龜鉉

나의卒業論文主題 ①

勿論 漢文表現이 되엇던것이外에表現으로 發展ㅣ止揚되다는것은 相當한 長期間의 洗鍊을 거치야 할 歷史를 갓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 이洗鍊期가 卽 漢譯期로서 漢文 한글表現外에 上述한 混用體가 잇는것이 그의 特徵이다. 그러나 한글 表現이 斷然 勢力을 擧揚하고 잇다는것은 숨길수 업는 事實로 前者 漢文表現과 混用體는 몰락해가는 兩班層과 더부러 漸漸 쇠해가는것이오 後者는 신흥하는平民層과 더부러 次次 성해가는것이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兩班層과 그들의 寄生者들은에 〃作되어 發展하던 兩班文學形式—卽漢文小說이 平民文學形式—卽한글小說로 發展되엇다는것은 그時代와 有機的 合法則的關係가 잇는것이기때문이다. 具體的으로 例를들어 論證하기로하자. [illegible] 德懋는 한글 效用의 範圍를 婦女 [illegible]에다 制約햇스나 事實은 決코 그러것이 아니엇다. 典型的인 儒學者 蔡濟恭의 告白을보면 알것이다. 『近來 女子輩(閨閣)이 다투어가며 能事로여기는것은 오직「이야기책」(稗說)을 崇尙하는것뿐이다. 불어하고 날로달려서 그종자가 千百가지다』 이 稗說은 곳 英·正以後의 한글小說이 知識에 주리어던 婦女子들 사이에 歡迎되든것을 歎息한것으로 한글效用의 範圍가 [illegible]에만 局限된것이 아니라 明白히 할수잇다. [illegible]이란 사람이 이야기책을 꾸며내는것도 이때다. 이보다 더욱 興味잇서 보이는것은 [illegible]學者의 [illegible]한 告白이다. 『세상사람이 [illegible]을 [illegible]치 여겨 가진 [illegible]을 [illegible]기를 마지안는데, 그 [illegible] 보아서는 [illegible]에잇서서는 [illegible]이 아니고 무엇이냐!』 [illegible]보다 [illegible]한것은 [illegible] 表現된「이야기책으로」[illegible] 山自身의 [illegible]비슷한 告白이 잇다. 『우리 東俗이라는것은 女子들에게 諺文만을 가르키고 漢文은 가르키지안는다. 이까닭으로 女子란는것은 [illegible]을 못지못하고 五經五常의 重大한것을 아지못한다. 「이야기 책」(稗說) 가튼것은 모다 [illegible]한것으로 [illegible] 大體 [illegible]에서 나온것이라는것을 아지못한다는것은 말할것도업고 그것을 [illegible]로 認定까지하다. 事情이 이러하니까 國家는 하로바삐「이야기책」(稗說)을 嚴禁하지안코 아니된다.』

[illegible] 안배치고 방해권는소리다[illegible] 꿀떡해서는아니될것이다. [illegible]와 女性들 잡어려기치고, 돈을 주어 책을세내여, 惑하여 마지안는[illegible]에 家産까지 탕진해버리는 者도 적지안타. 大抵「이야기책」의內容이라는것은 [illegible] 모두 [illegible]와 [illegible]을 記錄한것으로, [illegible]은 或 이때문인가한다.』

이 記錄이 事實이라는것은 今日「이야기책」을 세주는것으로 一家의 生計를 세워나가는「세책집」의 嚴然한 存在가 證明한다. 또 [illegible]이「나도 어려서 西廂記三國演義가튼「이야기 책」을 耽讀하다가 先親께 걱정을당한 以來부터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안햇다」는 事實한 告白으로 읽어본다면 滋味도 滋味려니와 [illegible]小說—「이야기책」이 그얼마나 널리 [illegible]及되엇는가를 알수잇다. 그런데 아니라 人間의 [illegible] 또한 나히 많은 先輩들까지「이야기책」을 읽기를 [illegible] 말을 한다.

『[illegible]小說이란 [illegible]을 가르키는데 지나지 안는다. 애들에게 [illegible]것인데도 不拘하고 사람을 [illegible]해 노코는 노다 노다 [illegible]하다 더가어찌 로 [illegible]하여 읽히는 사람이 잇스나 無知가 이찌 이러도록 甚할가!』

『[illegible]의 少年이란 게으르기 짝이업서 [illegible]에게 [illegible] 반드시 先輩에게 먼저어떠한 책을 읽어야 [illegible]에 利로울것인가를 물을것가트면 先輩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야기책을 읽도록 권고하니 슬프다! 相互의 過失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記錄은「이야기책」이 先輩와 後輩 두世代사이에 읽히어다는것을 [illegible]하는것으로써 비록그 사이가 [illegible]的으로는 아니나 先生과 先輩가 잇서가지고 後輩나 弟子에게「이야기책」을 권햇다는것은 [illegible]에 비저 [illegible]는 아닐뜻 생각한다. 何如든 이記錄은「이야기 책」이 만흔 사람들사이에 읽히는동시에 그들사이에 기피뿌리를 내린것을 말하는것이다. 널리 퍼지엇다는 [illegible]의 나로 [illegible]의「[illegible]」이라는책이잇다. 그것은 [illegible]으로 보아 相當이 오랜것임이 [illegible]고 八十餘年前에 [illegible]를 낸것이다. 在來의것과는 [illegible] 漢文을 完全히 [illegible]한것으로 그 中에 [illegible]하는 [illegible]로서「이야기책」을 서로 빌려 내는데가잇다. 그중에 一節을 引用하기로 하자.

[illegible] 下文에 [illegible] 다시 [illegible]이므로 여기에 [illegible]것이라

附錄

"靑色의惡魔"의 所在

★…佛軍中에서 獵步兵이라고하면 第一次大戰當時부터 勇猛하기로 有名한軍隊다. 第二次大戰이러지자 歐羅巴사람들은모두 大體이獵步兵이어디가 싸우나하고 궁금해햇다

★…그들의原名은「알프스의 獵軍」인데 지금 一般으로는『靑色의惡魔』라고 불러지고잇다. 一次大戰때에는特히「알사쓰」와「보스즈」山岳戰에 勇名을 떨첫다. 나중에는「베르당」에서고 싸우고「솜므」谿谷에서도 싸왓다 斷然하엿던 伊太利「꿈레·흙바」의 回復은 그들의赫赫한功勞의 하나로세 여젓다.

◇…戰時에는 이獵軍의 大隊가 約百인데 各隊에는 八百名式 所屬되어잇다. 그러나 平時에는 오직 三十一大隊뿐이다. 前佛軍總司令「가므랭」將軍도 獵軍出身이다.

◇…「靑色의惡魔」라는 말은 이푸른軍服입은 獵軍에게서 쓰라린打擊을 바든 獨逸사람들이 지어낸말이다. ◇…이獵軍은 軍樂隊를가지지안는것으로 또有名하다. 다만부과나팔을가진 一隊만끼여잇다. 그들이 正式으로佛軍隊에 編入되기시작한것은 一八八五年부터다. 革命當時에도 活動햇다고하나 勿論非公式이엇다. 그들은「스키ㅣ」를 잘타고또 登山에도名手다. 그런까닭에 이번싸움에는 諾威戰線에 配置되엇다고한다

孫子講義

九地篇 (七)

能愚士卒之耳目하여 使之無知

【註】杜牧이曰 軍士로하여금 其他는다알지못하게하여 [illegible]

【通解】能히 士卒의耳目을 [illegible]케하여 하여금알지못하게할지니라

易其事하고 革其謀하야 使人無識이니라

【註】易은改也오 革은變也니 그所行의 事를고치고 그所爲의 謀를 變하여 사람으로하야금 能히알지못하게하미라

【通解】그일을 박구고 그꾀를 變하여 사람으로하여금 알지못하게하나니라

易其居하고 迂其途하야 使人不得意니라

【註】易其居는 奇伏을 베푼다함이오 迂其途는 가까운데 먼것으로 보이단 말「近而示之遠」이라

【通解】그居處하는것을 박구고 그길을 멀게하여 사람으로 하야금 생각지못하게하나니라

帥ㅣ與之期면 如登高而去其梯니라

【註】杜牧이曰 하여금 退心이 업게하미다

【通解】將帥가期約으로 주면 노픈데올으매 그사다리를 바린과가트니라

帥與之深入諸侯之地而發其機니라

【註】賈林이曰 我의機權을動하여 일을따라 變에 應하나니라

【通解】將帥가 軍士로더부러 諸侯의 땅에 기피드러가서 그機를 發하나니라

焚舟破釜하야 若驅群羊而往하고 驅而來애 莫知所之니라

【註】舟를焚하고 釜를破하는것은 軍士의게 必死의뜻을보이는것이라 모라가고 모라오매群羊이 牧者를 좃는것과가트니 莫知所之는 衆心이 齊一한것이라

【通解】舟를 焚하고 釜를破하여 群羊을 모라가고 모라오는것과가튼때 그가는바를 알지못하나니라

聚三軍之衆하여 投之於險이 면此謂將軍之事也니라

【註】將軍이曰 三軍을 險難한데에두어서 이기를 取하는者는 將軍의 任務가 되는것이니라

【通解】三軍의 衆을 모아서 險한데에던지는者는 이것이 將軍의 事라일흘나니라

九地之變은 屈伸之利오 人情之理니 不可不察也니라

【註】張預ㅣ曰 九地의法은 屈함과 伸함을 可히伸할때 하여그利로운바를 살필지니 이것이 人情의常理라 可히살피

世界의귀

蘇芬戰線 凍死者의死因

【[illegible]電】米國[illegible]에서는 蘇芬戰線에서의 [illegible]의凍死者 [illegible]을 [illegible]하고 잇는데 이戰線의 凍死者의 大部分이머리를 [illegible]고 [illegible]하고잇섯고 [illegible] 事實에서 [illegible] 十年來의 [illegible] 零下 [illegible]度라는 [illegible]한것으로보인다. [illegible] 시작하면 잠이와서 그자리에 안자 몸을움크리다가 [illegible]에이른다 그런데 凍死者가 [illegible]하고 [illegible]는것은 얼마나 [illegible]하고 [illegible] 말해준다.』고 一硏究者는 [illegible]

戰爭과 美術家

【倫敦[illegible]】戰爭이시작된以來英國美術家는모다 [illegible]에빠젓다 戰前에는 그림한장이 數百磅으로팔리던畫家도 開戰以來 이런高價는 물론 엄시 一週手當一磅乃至二磅으로 [illegible] 就職하는[illegible]文이 잇스면 거저주[illegible] 名畫를 그린다고한다

新刊紹介

▲鑛業時代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九八 朝鮮鑛業時代社出版部 振替京城八九三〇番 定價五十錢

▲朝鮮 五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 定價三十錢 一手販賣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番

本報次回夕刊小說

三新進의 中篇小說競載

滿天下讀者의 絶讚을바든 "大地의아들"의 뒤를이어 六月初旬부터 揭載

紹介의말

만주벌판에서 싸우는 백만의 조선인 개척민의 움지기는 서사시(敍事詩)를 그려가는 본사의 획기적 거작이던 이기영(李箕永)씨의『대지(大地)의아들』은 만천하독자의 절찬속에 이윽고 대단원을 매지려한다. 본사는 다시 그뒤를이어 신흥문단(新興文壇)의 전위부대(前衛部隊)중에서도 가장명성이쟁쟁한 김동리(金東里) 김사량(金史良) 김영수(金永壽)세씨의 중편소설을 연재하여 지리한 이한여름 독자제위에게 청신한 감흥을 자조바꾸어 올리려하엿다 [illegible] 재기에넘치는 삼씨의 신예한 붓끝은 반드시 일대선풍을 이르킬것이며 금년도 문단의 빗나는 금자탑이 될것을 조케잇는다 (사진은 우편으로부터 김동리, 김사량, 김영수제씨)

金東里作 地藏行
金史良作 그다음날
金永壽作 새벽바람

三驍將의略歷

金東里 씨는이미『무녀도』(巫女圖)『황토기』『산화』(山火)등의 여작을 속속발표하여 그의량에 대하여는 아모다 의심이업다 씨가 그리는 세계는 고등한 민속적(民俗的)향토적인분위기를 버저내서 우리의 심금에 가장친근하게 부딧친다. 근자에 날로 날카로워가는 붓을가다듬어 그려낼 일편은 반드시 독자를 매료할것이다.

金史良 잡지『조광』(朝光)에 연재되는 장편『낙조』(落照)는 문단 근래의 의문표다. 그정확한 구성(構成)장면전환의묘미 [illegible] 묘사의 매력은 씨가 [illegible]『코ㅣ랑』작가인 [illegible] 예감붓는다. 과연씨는 동경문단에서는 벌써『빛속에』등의 문제작으로 혜현한 장래를 촉망밧는 작가다. 연래『인테리』의 고민의 이해는 점에서는 아모도 씨의 우에 설작가가 업을것이다.

金永壽 가편『소복』(素服)으로 작년도 본사신춘문예에등장한 씨의 그뒤의 창작활동은 문자그대로 [illegible]엇다. 어제 그동안 [illegible]「전격작전」(電擊作戰)이 혀기량을 기우려 역작『새벽바람』을 내노려한다. 평범한 일상생활(日常生活)속에서도 늘이간성의 기미를 찾어내는 섬세한감정과 설화(說話)의 묘를어든 운필(運筆)은 아울러서 반드시 독자의 기대에 어그러지지안는 명편을 짜낼것이다.

★ 覇氣와 才氣에넘친 新興文壇前衛部隊의 進出 ★

補血·精力·强壯
不老丸
京城 東亞醫藥硏究所

이건便利하다!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一九九七

便紙쓰는法
手紙新辭典
便紙를쓰려면 萬事如意하게 [illegible] 反對로 서투르면 [illegible] 本書는 [illegible]
◆日用文◆慰問文◆法文文◆催促文
◆商用文◆公用文◆儀式◆交際◆
特價 一圓廿錢
東京牛込 進文館

鑛工業原價計算 企畫院原案成立

鑛工業原價計算要綱案 (三)

第二十二 減價償却費 減價償却費에 對해서는 如左히함
(一) 減價償却資産이라함은 經常의 減價償却을 要하는 固定資産의 取得價額, 耐用年數及 殘存價格을 測定하여 當該固定資産의 原價要素로 無形機械的으로 減額하여서 投下資本을 回收하는것을 말함이다 減價償却은 減價償却資産의 如何에 不拘하고 一定한 計算方式에 依하여 행하야함
(二) 減價償却을할 資産의 種類는 如左하다
(가)建物, 建物附屬設備 (나)構築物 (다)機械及裝置 (라)運搬具及運搬設備 (마)工具器具備品 (바)耐用年數一年以上의 工具 (사)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아)鑛業權, 砂鑛權, 水利權 (자)試驗研究費(試驗研究費中에 經常의 性質을가진것은 이것을 除外함) 新技術을 採用하기爲한 準備로서 支出한 特定의 試驗研究費는 新技術을 實施하기까지는 이것을 繰延하고 新技術을 實施하는 同時에 其有效期間을 豫定하여 그減價償却을할 試作費, 試驗費用에 對해서도 亦是同一함
(三) 無形, 機械及裝置 工具器具備品其他有形 固定資産의 減價償却은 取得價額 또는 製作에 要한 實際의 取得價額을 基礎로 한 組立費, 基礎工事費, 諸般의 附帶費用에 對한 正當한 附帶費用은 이것을 固定資産의 取得價額에 算入할 改造又는 修繕에 依하여 固定資産의 效用또는 耐用年數가 顯著히 增加된때는 其增加額은 이것을 그 固定資産의 一部로 하여 取得價額에 加算함
(四) 固定資産은 原則으로 各物件別로 其取得價額을 計算하여 이것을 豫定하고 各物件別로 減價償却할 但 件別로 減價償却을 計算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을때는 物件의 種類, 耐用年數 等 類似한 것을 一括하여 減價償却할수 있음
(五) 固定資産의 耐用年數는 使用 또는 時間의 經過에 依한 物理的 減耗, 技術的 進步에 依한 陳腐化等을 考慮하여 大藏省 主稅局에서 定한 耐用年數에 依함
(六) 固定資産의 耐用年數는 別途 定함

(七) 減價償却費의 計算은 定額法 또는 定率法에 依함 但 鑛業權의 減價償却은 生産高比例法에 依함
(八) 過去의 期間에 償却할 減價償却費로서 未償却의 것에 對해서는 이것을 原價에 計上치 아니함
(九) 不意의 災害 또는 豫測치 아니한 陳腐化等에 依하여 固定資産의 價值가 顯著히 減少한 때는 ...

第二十三 ... 固定資産의 賃借料 ...

第二十四 一般管理費及販賣費 ...

(一) 給料及賃金 (二) 旅費交通費 (三) 通信費 (四) 租稅公課 (五) 事務用消耗品費 (六) 減價償却費 (七) 修繕費 (八) 保險料 (九) 賃借料 (十) 交際費 (十一) 販賣手數料 (十二) 廣告宣傳費 (十三) 雜費 ...

第二十五 ... 損失 ... 原價에 算入치 않음

(一) 異常한 災害에 依한 損失 (二) 偶發的 事故의 損失 (三) 固定資産의 賣却損, 除却損 ...

—계속—

金融情勢多少緩和! 五月의 公債消化良好

但金融緩漫은 期待치 말라

【東京】最近國內金融情勢는 大體緩和한 季節的原因도있으나 그公債發行이 巨額이고 金融機關의 資金計劃의 第一目標가 公債消化에 있는 限 貸出抑制에 努力하는 結果 三, 四月頃의 異常한 逼迫狀態가 多少緩和되는 傾向이 있다 即 短資市場은 年初의 日步가 上昇하는 一方 投資(에)는 除除이나마 回復의 兆候를 示現하고 政府資金散布가 進步되어 五月에 入하여 比較的 公債保有에 當하야 마음이 놓인다는 程度이 다 又 當局이 努力하는 百%消化가 今後 實現될것이라 期待할수 있고 中心目標는 資金計劃의 圓滑한 運行에 있다 하겠다 五月은 比較的 緩和되리라고 期待할수 있으나 今後 ...

鴨川냇궤技術陣

【東京電話同盟】鴨川냇궤 工業(資本金一千萬圓, 半額拂込)杯安繁氏)은 低溫냇궤, 코-크, 鉄鑛의 增產에 本格的으로 着手하고저 千葉縣船橋에 工場을 建設中인데 八月中에 完成 이것을 運轉할 技術陣을 强化하고저 이지음 大阪에서 集合으로 이것을 機會로 ...

浮動購買力吸收 貸出抑制策講究

六月에 各道理財課長會議開催

總督府에서는 各道理財課長會議를 오는 六月二十六日頃 二日間 開催할 豫定인데 此會議에서는 貯蓄獎勵를 强力化하고 購買力의 抑制에 努力할 必要가 있으므로 그 具體的 實施方策에 對하여 意見을 求하리라 한다 同會議에서 開催되는 會議의 問題로 重點主義를 採用하여 經濟上의 生產部門에 對하여는 從來 일시라도 貯蓄을 ...
一, 浮動購買力吸收에 關한 具體的方策如何
이것은 時局產業關係會社, 工場, 鑛山 等 所謂 股賑產業方面에 對하여 相當히 强力的으로 獎勵에 努力하여왔으나 이것을 更히 徹底히하고 또 農林, 水產物價의 騰貴에 依한 地方農山漁村에 相當히 購買力이 增加하게 되었다 이런 意見을 求할 것이다
二, 貸出金의 抑制에 關한 具體的方策如何
이것은 最近 朝鮮內에 있어서 通貨膨脹이 顯著하게된 實情에 鑑하여 投機資金, 買溜資金 또는 不急不用資金의 貸出抑制를 强化하기 必要가 있고 이에 關하여 地方金融의 實情에 對하여 具體的 方策에 對하여 意見을 求하리라 한다
以上과가치 內地의 生產部門이 重點主義를 採用하는 工業者는 그 救濟策으로서 政府에서도 工業者를 滿洲에 移動시키고저 努力中인데 滿洲國側에서는 在滿工業家와의 摩擦을 防止코저 反對하여 日滿實業協會에 對하여 官民合同의 審査會를 設置하고 有望한 者만을 移植하기로 하여서 그前途는 자못 注目된다

重點主義反響 內地財界自重

田川京城商議會頭談

지난二十二日부터 東京에서 開催한 東亞經濟懇談會에 出席코저 渡東中이던 田川京城商工會議所會頭는 三十日朝歸京하였는데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物價物資問題調整에 對하여는 內地도 朝鮮과 大略같고 一般經濟界는 昨年내가 본 當時보다 훨씬 萎縮된감을 주었다 그것은 勿論 金融梗塞, 統制强化其他生產擴充部門에 있어서 重點主義를 强行한 까닭일것이다 一層 硬化될것이 豫想된다 即 從來內地에서 金融을 너무 融通하였으므로 資金이 相當히 減少되었고 今後의 懇談會狀況으로 觀察하면 今後 滿洲國의 金融梗塞은 쉽지않다 그러나 出超 關係上 『이울리』를 招來하여 物價는 豫想以上으로 高騰되는 傾向이므로 今後는 資金은 絶對融通치 않으로되었고 따라서 滿洲國政府도 手持證券을 開放하여 資金의 自給自足을 圖하여 ...
內地로 朝鮮과 大略같고 朝鮮의 輸入高는 二十五億圓으로 나머지十億圓은 全部資金으로서 輸出한것이다 右滿洲國金融梗塞의 朝鮮에 미치는 影響은 別段없을것이나 社債方面은 若干 寒心할 것은 昭和十三年來訪한 伊太利와 太平洋 印度洋諸國과의 貿易과 經濟關係增進을 圖謀하기로 되었다 이

> **伊太利貿易**
> 東方伊太利商業會社創立
> 朝伊貿易增進企待

內地麥移入 依然不進捗

內地麥의 朝鮮向移入은 依然不進捗의 狀態로 移入申請하는 者도 移入하여 있는 內地業者中에서 朝鮮向에 申請하는 者는 皆無狀態이라한다 朝鮮向申請이 없는것은 價格이 不利한 때문인데 우리가치 蓄蔵傾向이 有利한 때문인 現在 朝鮮內로서는 現在百二十萬石餘의 移入을 보고있는바 今後 八十萬石의 移入이 絶對 必要하다 한다

◇矢島杉造氏(米穀市場會社長)은 地에 出張中 二十九日歸任

春蠶第一回豫想

蠶種掃立三分九厘增

今年度 春蠶掃立開始以來의 狀況은 中部以南에 있어서는 一般으로 前年度보다 多少 遲延되었고 北部朝鮮地方에 있어서는 大體例年대로 進行되었다 仍히 그 詳細히 보건대 南部朝鮮에 있어서의 掃立은 五月上旬이었으나 慶尙南道, 全羅南道, 全羅北道는 五月上旬乃至五月中旬이었으나 京畿道 伊太利 中部朝鮮地方에 있어서는 五月上旬이었고 北部朝鮮地方에 있어서는 昨年보다 一, 二日늦었고 中部朝鮮에 있어서는 五月上旬이었다 ...
蠶種의 掃立豫想數는 六十三萬五千二十七枚로서 前年同期의 掃立實數 六十一萬一千百十一枚에 比하여 一萬三千九百十六枚 即三分九厘의 增加를보이었다
어것을 道別로보면 慶尙南道의 一割七分乃至二割의 增加를 보이고 全羅南道의 一割一分九厘 全羅北道, 忠淸南道, 慶尙北道 等은 一割六厘乃至一割內外 其他 京畿道, 江原道 咸鏡南道 平安北道 黃海道 平安南道는 七分九厘乃至九厘의 增加를 보이고 反對로 忠淸北道는 一割 二分一厘 忠淸南道는 三分五厘 慶尙北道는 二厘의 減少를 보이었다
發育狀況은 一般으로 良好하다 桑葉發育狀態는 忠淸北道가 他는 大概良好하나 第一不良하고 그다음으로 不良한 地方은 忠淸南道, 平安北道, 京畿道, 慶尙北道, 江原道, 咸鏡南道는 普通 其他各道는 모두 一般으로 良好하다
蠶兒의 發育狀況은 慶尙北道의 極一部의 發生이 不良하고 其他는 ...

靜岡縣의 繭價協定決裂

【東京電話同盟】今年春繭取引에 伴하여 中央繭糸價格協定委員會가 各府縣의 繭價協定委員會에 ...

日滿支 連絡手小荷物 受託制限實施

七月一日부터當分間

鐵道局에서는 日, 滿, 支間의 連絡手小荷物의 輸送이 急增된 관계로 그輸送을 圓滑히하고저 鐵道省 滿鐵, 華北, 華中 運輸機關과 協議한 結果 一時的 手小荷物의 受託制限을 하기로 되었는바 從來에 比하여 더 制限된 點은 다음과 같다
▲手荷物의 制限으로서는 一個의 長 一米 (運動用具 釣魚具 病人用擔架及天幕生活用品을 除함) 容積 一立方米又는 重量百瓩
▲小荷物은 臨時 大口荷物의 定한 大箱을 除하고 一個의 長 二米 容積 一立方米又는 重量 三十瓩 (生物의 長 一米 容積 Q, 五立方米 重量 五十瓩 又는 運送距離 二百粁以內인것)
▲行商品(携帶品을 除함)은 一個의 長 一米 容積 Q, 五立方米 重量 五十瓩 又는 運送距離 二百粁以內인것
▲商品見本은 一個의 長 一米 容積 Q, 五立方米 又는 重量 五十瓩
▲自轉車와 病人用運搬車는 一人에 對하여 一輛
▲商品運搬車(容積一立方米又는 運送距離二百粁以內인것)는 一人에 對하여 一輛
그리고 附隨小荷物은 다음과 같아 制限取扱한다
▲貴重品一個의 長 二米 容積 一立方 又는 重量百瓩以內 人道 容積 一立方
▲動物(犬以外)은 容積荷物을 ...

煙草賣上成績

누가가장만흔가

京城府內의 煙草小賣人은 總數一千四百一名인데 右中 昭和十四年度에 있어서 一萬五千圓以上의 賣上高者는 左의 十名이다 (百圓以下는 四捨五入)
十八萬圓 古市町鐵道廣生會
五萬八千圓 漢江通鐵道消費部 竹原文太郎
五萬八千圓 京城驛構內 伊東龍
五萬三千圓 鍾路和信 朴興植
四萬三千圓 三越 山口源

全朝鮮洋服商組合 聯合會創立準備會

全朝鮮洋服商組合 聯合會創立準備委員會는 三十日午前十時 府民館 小講堂에서 全朝鮮各地組合 代表者가 參集하여 道聯合會 組織要綱 全朝鮮聯合會 組織要綱을 協議하였는데 商工課 山本事務官으로부터 聯合會 創立의 必要를 指示한바 있고 되도록 六月二十日까지 各道別로 聯合會를 組織한後 七月上旬까지 全朝鮮洋服 商工組合聯合會를 創立케되었다

道解局試金部長, 工博, 小松原久 治氏를 現職대로 技術顧問에 委囑하기로되어 關係當局의 承認을 얻기로되었다

華北車輛創立

【北京二十九日發同盟】華北交通會社에서는 南부터 北支에 있어서 日支車輛業及 關係者網羅하여 華北車輛株式會社 (資本金三千萬圓) 를 設立計劃中이던바 六月一日 北京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되었다

滿洲醫大 三萬八千圓 滿洲通 三萬七千圓 南大門通 一萬七千圓 鐘路 金成春 二萬八千圓 滿進町 柳芝元 一萬五千圓 本町三丁目 惟木

鰮粕販賣高

油肥聯調查의 五月中旬의 鰮搾粕의 賣約狀況은 如左하다 (單位瓩)

	五月中旬	累計
咸北	—	八〇
咸南	—	八、〇〇〇
江原	四、〇〇〇	一六、〇〇〇
慶北	二〇〇	四、二〇〇
慶南	—	五、〇〇〇
合計	五、〇〇〇	三三、二八〇

滿洲紡績業 八割四分操短

【新京二十九日發同盟】原棉難에 因의 在滿紡績操短에 對하여는 二十七, 八兩日에 第一회 滿洲紡 繭價協定委員會 第一部會를 열고 日滿軍人會館에서 協議한 結果 最後的決定을 하기爲하여 二十九日 午前十時 日滿軍人會館에서 協議한 結果 第一部會員全部參集 八十二掛에 對하여 製絲側은 白繭八十三掛 黃繭八十掛를 主張하여 서로 讓步치 아니하여 決裂되었는바 同縣의 繭取引은 結局 農林局에서 六月一日부터 同月末까지 (休日을 包含) 八割四分二厘五毛 (現在 六割四分二厘五毛) 의 高率操短을 하기로 決定하였다

이 滿洲國繭 ... 其他 ... 繭價協定委員會를 열고 ...
一部製絲家中에서는 現在繭高絲安으로 採算이 맞지않는 것을 是正하기爲하여 繭價協定基準價格을 國家가 强制하라고 主張하는 이도있으나 一部가 國家가 繭價를 强制함은 影響이 만흘뿐만아니라 繭價의 實質的 公定은 乾繭及生絲의 清算取引의 禁止, 生絲取引價格의 公定이라는 重大問題도 誘致하게되므로 繭價만 强制할수는 없다 現在의 中小製絲家의 繭入手難이 繭價를 올리게하고있으므로 大製絲家는 初繭買入을 自制하여 當面 中小製絲에 原料繭을 讓步하는 等 自治的統制에 依하여 繭價의 適正化에 努力하여야할것이다

會社總會一束

長津江水電

長津江水電에서는 三十日午前十一時부터 京本社에서 第十四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當期利益金處分案及 利益金處分及定款變更 (改定商法에 基한 變更) 의 件을 附議 모두 原案대로 可決하였다

利益金處分은 如左하다 (單位圓)
當期利益金 五三、五二七 前期繰越金 ...
法定積立金 三〇、〇〇〇 退職基金 ...

有煙炭

朝鮮有煙炭會社에서는 三十日午前十時부터 東拓支店에서 第一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左의 決算案及 定款變更(商法改正에 依한)을 附議 모두 可決하였다
當期純益金 五五、三〇一
法定積立金 三、〇〇〇

土地改良事業 實施事項檢討

土改課長會議開幕

本年度에 實施할 土地改良事業의 實施協議할 各道土地改良課長會議는 卅, 卅一兩日間에 亘하여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되었다 初日은 午前九時卅分부터 湯村農林局長의 訓示에 이어 細見土地改良課長으로부터 指示가 있은後 諸問에 對한 答申이있고 午後四時 散會하였다 第二日은 左記協議事項에 對하여 協議한다
一, 諸問事項
土地改良事業計劃의 樹立과 그 遂行上 檢討를 要할事項
二, 指示事項
一, 十五年度土地改良事業豫算의 實行及 整理에 關한件
나, 水利組合事務의 合理的處理에 關한件
다, 既設水利組合의 指導, 監督에 關한件
라, 土地改良事業補助內規改正에 關한件
三, 協議事項
가, 朝鮮水利組合聯合會事業에 關한件
나, 小規模灌漑改善, 小規模排水整理及 暗渠排水事業의 實施要項에 關한件
다, 農業用地下水調査에 關한件

十錢

▼十五年度 朝鮮의 豫算總額은 六億六千萬圓 事變前에 比하여 倍增, 合倂當時의 二十倍로 大膨脹.
▼그財源도 무엇이 나하면 官業收入 四億二千萬圓 (四八%) 公債一億圓 (一二%) 稅金一億五千萬圓 (一九%) 等.
▼官業中 鐵道와 專賣純益이 各五千萬圓以.
▼朝鮮의 借金은 八億七千萬圓 其中 鐵道建設에 쓴것이 勿驚七億以上.
▼一年間公債利子等總額가 四千百萬圓 그러니 鐵道의 純益가지고 朝鮮全體財政의 利子 盆돌기나하는셈.

株式 軟調

氣迷裡에

今日의 市勢 三十日

前場 軟調 前場 凡調 今朝는 東新으로 高調이었으나 東新五百九十圓 四十七錢 朝新三百二十八圓에서 高値을 보이고 後場 高調 後場은 前場의 兩波新不變인 五十七圓二十錢으로 後場軟弱 ...

不透明的狀

白井流軍의 降服을 契機로하여 歐洲戰局은 悲觀한 苦境에 빠지게되었으나 今後一層 深刻의 非常한 戰況을 豫想하는 市場은 英國이 再起할수있을지 아닐지 ...

小林鑛業

小林鑛業에서는 三十日午後一時 府民館에서 株主總會를 開催 ... 株式會社小林本社와 合倂件 ...

東京國債

◆十九年物 一〇二、七五 ◆佛貨四分 一九九、一五〇

今日現株市勢(正午)

[illegible]	[illegible]

果物

今朝果物市勢는 甜瓜가多少軟化되었다 即夏柑은二圓에서 十八圓乃至 八圓四十錢으로 三等甜瓜는 五十錢에서 一圓乃至八圓으로 軟化되었다 ...

菜蔬

玉葱은 繼續軟化되어 今朝도 十二貫에 四十錢이 低하여 五圓乃至 五圓九十錢으로 ...

海外經濟 廿九日

京城物價 三十日

[illegible]	[illegible]

棉花 / 綿布 / 生糸 / 鰯油粕·麥粉 / 株式 / 對外爲替 / 金利手形交換 / 銀行券

[illegible]	[illegible]

三國志 (200)

韓龍雲 譯
熊超 畫

徐庶 (六)

현덕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래며 말하되 『어미와 자식은 하늘에서 타고난 인연이니 원직은 나를 생각지말고 어머니를 구원하러 곧 가시오 뒤에 다시와서 가르치게 하소서』
서서가 절하여 사례하고 떠나고자 한대 현덕이 말하되 『밤을 지내고 더 떠나더라도 잠깐 묵어 내일 떠나게하소서』
손건이 가만히 현덕에게 말하되 『원직은 천하의 기이한 재조라 오래 신야에 있어서 우리군중의 허실을 다 아는지라 어 세만일 조조에게로 도리가면 반드시 중하게 쓸것이니 우리가 위태할지라 주공은 기어이 만류하여 결단코 노아 보내지 마소서 원직이 가지 아니하면 조조가 반드시 그 어미를 죽일것이니 그어미를 죽이면 원직이 반드시 어미의 원수를 힘써 치리로다』
현덕이 말하되 『그러치 아니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어미를 속이게 하고로 어 ...
『나는 공의 간다는말을 드르매 양편조를 잃은것과 거터 서 비록 용의간과 봉의배라 도 또한 달지안노라』
두사람이 서로대하여 울면서 날이새기를 기다리더니 여러장수가 이미 성밖에 전송하는 잔치를 베푼지라 현덕이 서서로 더부러 말을 나란히하고 성에나가 이별하는 정자아래에서 말을나려 서로 작별하게 되었다
현덕이 술잔을들고 서서에게 말하되
『나는 복가 엷고 인연이 얇 버서 능히 선생으로 더부러 가치있지 못하게 되었거니와 바라건데 선생은 새주인을 섬겨서 공명을 이루소서』
서서가 울면서 말하되
『내가 적은재조와 여튼 지식으로 기피 사군의 중하게쓰 물 입다가 불행이 중도에 작별하게 되는것은 실로 늙은 어미를 위함이라 비록 조조 가 서로 핍박하여도 종신토록 한계책도 베풀지 아니하리다』
현덕이 말하되 『선생이 한번 가면 유비도 산림으로 돌아가겠노라』
서서가 말하되 『내가 사군을 도와서 함께 왕패의 업을 도모하려하는것은 한조각 마음을 믿고 함이러니 이제 늙은어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지러우니 비록 조조에게 있어도 계교를 쓸곳이 없으리라 이를터이니 사군은 마땅히 높은 어진이를 구하여 함께 큰업을 도모할지어다 어찌 그처럼 마음을 상하리오』
현덕이 말하되 『천하의 높고 어진이가 선생보다 나은사람이 업슬가 두려하노라』
서서가 말하되 『나는 용렬한 재목이라 어찌 감히 과한칭찬을 바드리오』
장수를 도라보며 『여러분은 사군을 잘섬겨서 이름을 죽백에 드리우고 공을 사기에 빗내어서 결단코 나와가치 시종이 없게하지마소 서』
여러장수가 마음을 상하지 안는이가 업섯다 현덕이 참아서 로 어별하지 못하여 한참을따라가다가 또 한참을따라가니서 서가 사례하되
『사군이 수고롭게 멀리 전송하시는 뜻이 없스니 이별을 고하노라』
현덕이 말위에서 서서의손을 잡고 말하되
『선생이 이번에 가면 하늘이 서로 나뉘는지라 아지못커대 어느날에 서로 만나리오』
말이마치자 눈물이 비오듯하니 서서도 또한 울면서 이별하였다 현덕이말을 수풀에세우고 서서의말을 보다가 울면서 말하되
『원직이 갓스니 내가장차어찌하리오』
하며눈물이 엉킨채로 바라보더니 문득 한 나무수풀에 가리어서 보이지않는지라 현덕이 채죽으로 가리치며
『내가 저기있는나무를 다베어 버리고 ...』
여러사람이 그연고를 무른대 『저원직을 바라보는 나의눈을 가리는 까닭이로라』
바라보더니 홀연히 서서가 말을채처 도라오는지라 현덕이 말하되 『원직이 다시 도라오니 갈뜻이 업는모양 이로다』
말을채처 나가 맞으며 『선생이 도라오니 반드시 무슨 뜻이 잇도다』
서서가 말을세우고 말하되 『나의마음이 산란하여 한가지 잊은말이 있도라 이곳에 기이한 선비가 잇어 양양성 이십리되는 융중 (隆中) 에 잇으니 사군은 구하소서』